

2006년 PC 시장의 지각변동, 통혼이 온다.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컴퓨터가 필수적인 생활, 업무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회사에서 컴퓨터없는 책상을 상상할 수 없다. 또한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면 컴퓨터부터 찾는다. 비단 필자 뿐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전화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컴퓨터 사용 시간은 일 2시간 정도이며, TV 시청시간은 3.2시간 정도로 집계되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마도 10~30대의 경우는 특히 컴퓨터 사용 시간이 TV 시청시간을 앞지르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컴퓨터가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 가장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운영체제를 제작하는 MS가 아닐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MS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모든 미디어와 사용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 PC 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새로운 윈도우인 통혼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우리의 컴퓨터 사용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보자.

윈도우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의 컴퓨터 환경

윈도우의 시작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처음 윈도우 1.0 이 나올 때는 주목조차 받지 못했고 윈도우 3.1 이 출시되면서 그나마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혹평과 비판으로 냉담을 받았다. 하지만 1995 년에 출시된 윈도우 95 는 MS 를 역전의 용사로 만들어주기 충분했다. 윈도우 95 부터 급속히 IBM 호환 PC 의 대표적인 운영체제로 자리잡으면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MS 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의 업그레이드와 변화는 곧 컴퓨터 시장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해왔다.

사실 우리는 컴퓨터를 켜면서 항상 대표적인 윈도우 로고인 윈도우 창을 보며 바탕화면이 나오길 기다린다. 그리고 MS 가 만든 윈도우라는 틀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 게다가 MS 는 윈도우의 지배력을 이용해 새로운 시장을 하나하나 접수하기 시작했다. 윈도우 98 의 출시와 함께 인터넷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웹브라우저 시장을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접수했다. 또한 윈도우 XP 의 출시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을 MSN 메신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접수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윈도우 XP 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서비스팩 2 에서는 인터넷 보안 기능이라는 명목아래 방화벽과 관업차단 기능 등을 추가하며 더욱더 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했다.

이렇게 윈도우는 우리의 컴퓨터 사용에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윈도우의 변화와 개선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윈도우가 달라지면 우리의 컴퓨터 사용 방식이나 습관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만일 윈도우의 시작 메뉴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윈도우가 바뀌었다면 우리의 컴퓨터 사용 방식도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만큼 윈도우는 우리도 모르게 컴퓨터 사용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2000 년부터 사용해온 윈도우 XP 는 약 5 년째 우리 컴퓨터를 지배해오고 있다. 이제 2~3 년후면 롱혼이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윈도우가 윈도우 XP 를 대체하게 된다. 달라진 롱혼은 우리의 컴퓨터 사용 습관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 또 롱혼으로 바뀔 우리의 컴퓨터 시장은 어떨까?

인터넷 지배력을 공고히 할 롱혼

당초 롱혼은 2004 년에 출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번 출시 시기를 늦추는 MS 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롱혼의 출시 시기를 계속 늦추었고 최종적으로 2006 년 말에 롱혼 출시를 발표하였다. 롱혼 출시 시기가 늦춰지면서 운영체제에서는 리눅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인터넷 시장에서는 구글의 지배력이 공고히되고 있다. 이렇게 롱혼은 단순히 일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와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그 외에 MS 는 롱혼 외에 PC 를 TV 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홈 컨셉(Windows Home Concept)이라는 가정용 PC 기술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롱혼에는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었다. 우선 새로운 윈도우 스토리지 기술은 윈 FS 와 향상된 웹서비스와 인터넷 보안 기능을 보강한 인디고가 적용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개선해주는 슈퍼페치(SpuerFetch), 보다 빨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릭원스(ClickOnce)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일반 사용자가 가장 눈여겨보고 관심있어할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코드명 아에로(Aero)가 적용되어 기존 윈도우보다 더욱 화려해지고 편의성을 높였다.

■ 어김없이 멋진 인터페이스의 화려함



일반 사용자에게 롱혼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과 달라진 변화라면 부팅 후 나타난 첫 바탕화면의 모습일 것이다. 롱혼은 애플의 맥OS X처럼 투명하면서 3차원으로 보여지는 세련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오른쪽의 태스크바에서는 증시현황과 각종 메시지, 시계, 그림 등이 표시된다. 또한 롱혼에서 실행되는 윈도우 창은 투명하게 보여 작업하면서도 다른 창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윈도우 창을 이동하거나 확대할 때 화려한 그래픽 효과가 나타나 눈을 즐겁게 해준다. 그 외에도 3차원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탓에 롱혼에서는 3종류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규격을 지원하고 있다. 즉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서로 다르게 지원하며 최상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인 에어로 글래스를 이용하면 3차원의 화려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것은 롱혼으로 통한다.

이미 MS 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외에 MS SQL 과 각종 서버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MS 오피스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출시해오고 있다. 롱혼에서는 오피스와 서버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되는 통합의 혁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윈도우 XP 에는 운영체제 본연의 기능 외에 WWW 사용을 위한 익스플로러와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은 MSN 메신저가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MS 의 포탈 사이트인 MSN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웹브라우저까지 제공되고 있다. 또한 MS 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핫메일은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 그 어떤 WWW 기반의 전자우편 서비스보다 간편하게 계정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결국 롱혼도 마찬가지이다. 롱혼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코어와 P2P 네트워킹마저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오피스와의 연동과 각종 MS 의 인터넷 서비스와의 연계도 더욱 공고히하게 될 것이다. 롱혼은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서비스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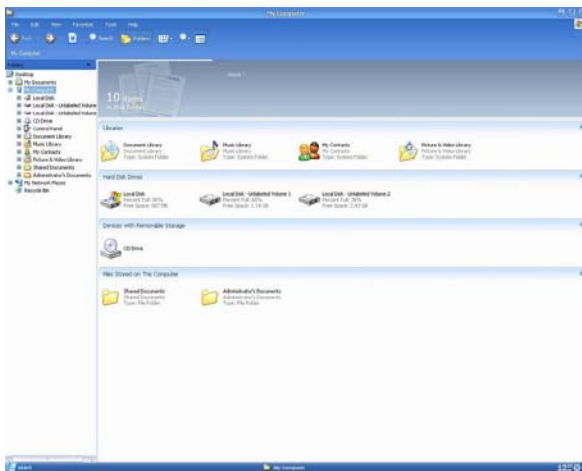
▪ 운영체제에서 즐기는 정보 검색



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서비스는 검색이다. 황금시장인 검색시장을 MS가 놓칠리 없다. 롱혼에서는 핵심 기능의 하나로 검색툴을 염두에 두고 있다. 롱혼의 데스크탑 PC 검색은 과거의 검색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사용

자 컴퓨터에는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각종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외에도 사용자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정보가 저장된다. 과거의 윈도우 검색은 단지 파일을 그 대상으로 했지만 롱혼에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와 메시지, 데이터 안에 포함된 정보를 그 바탕으로 한다. 게다가 데이터 검색 시에는 파일이름 뿐 아니라 스냅샷까지 볼 수 있다. 굳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도 간단하게 파일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롱혼의 검색은 네트워크와 인터넷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구글을 롱혼 안에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더욱 안정되고 빨라진 시스템



롱혼에는 다양한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새로운 파일 저장시스템인 윈FS(WinFS)이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FAT 기반의 파일 시스템에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인 윈FS는 작업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파일의 안정성도 개선되었다. 특히 윈FS는 파일검색 시에 폴더 단위가 아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스택(Stack) 기반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파일의 검색 속도가 개선되었다.